

29면에서 계속

랍니다.

▲질문자: 스님의 덕 높으신 가르침으로 온 도량이 법열로 충만합니다. 마음 모아 삼 배 올립니다. 행으로 옮길 내용으로 조상님들의 본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묘자가 풍부해져서 요즘은 농촌에서도 땅값을 나무로 하지 않고 프로판가스 등으로 대체를 하다보니 산에 풀을 베지 않아 성묘일이 온통 덩불 무성으로 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초하기도 힘이 들고 해서 차체에 조상님들을 화장하여 금왕지린 영당 공원에 모시고 싶은데 묘소를 잘못 손대면 큰 화를 당한다고 집안 어른들이 말리는 실정입니다. 실행해도 좋지 바른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스님: 그것도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잘 통해서 세상을 잘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해서 행하시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예전대로 그러한 시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름도 달라졌고 땅덩어리도 좁아졌고, 시대가 시대나만큼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차에다 싣고 급방 갈 거를 마차에다 싣고 가시려고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지금은 지금대로 생각이 달라져야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풍채진 거니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밝은 불, 향 켜놓고 삼 배 올리고 주인공에다 말기고 소(燒)해서 풀이나 산에, 풀에다가 끼었고 위패를 만들어 다라니에다가 써서 탑에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탑 하나만 하면 항상 되들어가고 되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돈도 안 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자손들에게 산으로 산으로 찾아다니라고 하기에는 부모들이 너무도 염치없습니다.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사는 도리에 맞추어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습 같은 데 얽매이지 마시고 마음먹은 대로 시대를 잘 봐서 돌아가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니깐요.

▲질문자: 한마음 공부할 한 도반들 중에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한 후로 꿈 또는 직감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고도 하고 그날의 탁월 일들을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한마음 공부도 진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자신이 그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스님: 아, 안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낫다고 얘기도 없었지요? 진도가 없으면 부처님이 어떻게 낫겠소? 우리 육신이 태어났다면 육신이 태어난 거지 정신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태어나라 하고 부처님이 이끌어준 거죠. 자기가 정신을 태어나게 했으니까, 부처님도 어디 공중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려고 사십구 년 살한 거죠. 그러니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명이 생겨가지고 먹고 먹히면서 그 시련을 겪으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화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진도가 없습니까?

▲질문자: 첨단과학이 발달한 요즘에도 현대의 의학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다 보면 불가사의하게도 완쾌되는 도반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님의 법력이야 마땅히는 믿사오나 그 심오한 치료법의 비결은 무엇이 은지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아울러서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도반들이 병고에 시달림 없이 늘 함

육이 풀려 힘이 없어지는 그런 병을 6, 7년 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쪽 발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나오기만 하면 바스라집니다. 이유를 몰랐죠. 지금도 불면은 합니다마는 어느 날 목욕탕을 가서 보았더니 발톱이 말짱하게 원형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다. 지금 현재는 발톱 양쪽이 전부 나와서 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인지요? ▲스님 : 아, 그거야 물론이죠. 그거야 물론이고

내는 놈이 그렇게 마음대로 내니까 마음이란 놈이 선장이 돼야죠.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란 놈이 선장이 돼서 다스려라 이겁니다. 다스려 나가되 그 다스리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이겼지겠 내게 하는 것은 업식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 몸중에 속에 헤아릴 수 없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가지고 업식이 돼서 내 몸 안에 잔뜩 들어 있는 거죠. 들어 있으면서 이거 내보내고 저거 내보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많이 성행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었더니 그대로 공부해서 가는 다리가 제대로 되고 지금 성장해서 아주 모 회사의...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다니고 잘 사니 나 좋고 그 사람 좋고, 세세 생애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를 반보기로 하고 마음을 발전시켜서 자기라는 놈이 그렇게 선장으로 있다는 것도 알았고, 선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생중생들이 다 따라준다는 것도 알았고, 따라서 행해준다는 것도 알았으니 점차적으로 가다보면 자생중생들한테 항복을 받는 거죠. 항복을 받는다는 그 말 자체가 말일 뿐이지 바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가 돼서 없었니까 이거는 항복을 다 받았느냐, 이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항복받았기 때문에 항복받은 것도 없고 안 받은 것도 없느니라, 그대로 여여하나라 이겁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은 '저렇게 빨리 되는 사람은 빨리 되는데 난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를 빨리빨리 해야 할 텐데 하는 것도 그냥 놓고 가십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 빛도 보일 수가 있고, 어떤 팬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고 없이 가고 올 수도 있고 이런 경계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고 공부 가르쳐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돌려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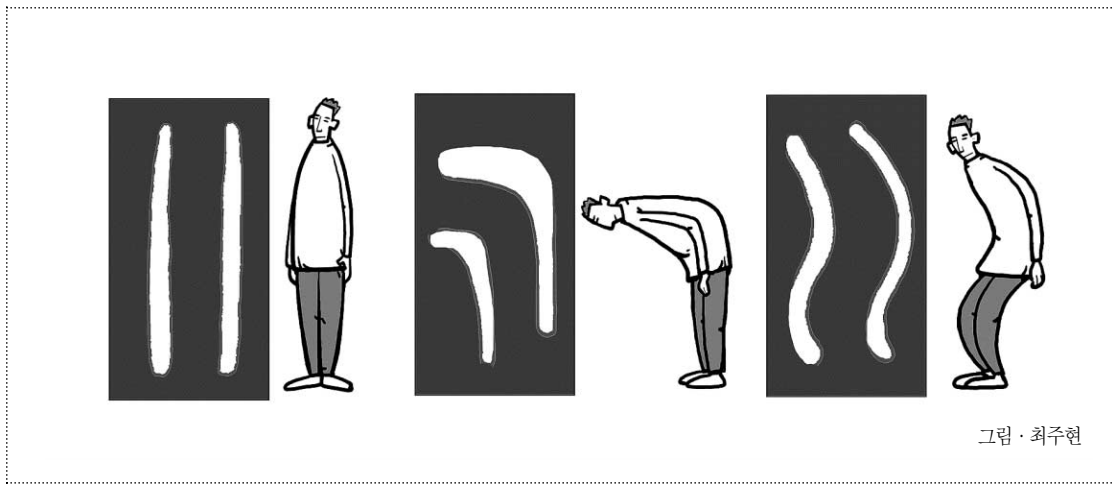
오신통도 벗어놔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법 상 위의 들끓을 가라키시며 오신통이라하면 이 바깥으로 벗어놔야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 이 안에 들어가서는 이 들 끓을 끌릴 수가 없죠? 오신통이라는 것이 내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차안 속입니다. 그제 차안을 벗어나서 피안의 세계로 벗어나야 이거를 끌리죠. 이 통을 끌리란 말입니다. 삼천대천세계를 끌릴 수 있다가 소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시작도 해볼 수 없는 공부입니다. 머리 깎고 승려가 돼야만이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서 사십구 년 설해주실 때 유마힐 거사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한 도량 안에서 모두 구속되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이끌어갔던 그 뜻을 알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없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마힐 거사도 그렇게 이 세상에 낫던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와 내가 낫는다는 말을, 중생들을 다 낫게 해야 내가 낫는다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모두 계신데 내 몸속의 중생들이, 생명들이 건강해야 내 몸뚱이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벽을 치면 못장이 올라가지 벽을 치면 천 대로 그것만 보니 늘 어가겠습니까, 어디?

▲질문자: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외려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저 튼튼한 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활보하신다면 더더욱 좋겠죠. (다음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78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와 인간의 근본이 직결돼 있고 이 세상은 인간의 마음에 가설 돼 있어



염주 줄이 염주 알을 끌고다니지 탄 게 어디 있습니까?

깨 건강한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스님의 법력으로 포용해주시실 수는 없는지요. ▲스님: 있죠. 그건 왜냐하면요. 내가 항상 여러 분한테 얘기하죠.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라고요. 단 하나 있다면 마음이 오고 가면서 돌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지니까 불이 들어 올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낫게 했다 내가 낫게 했다 이런 게 없다고요. 없는 그 가운데 불만이 밝혀졌노라고요. 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만 아주 튼튼한 자아부처의 원성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 아울러서 제 사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꽤 오랜 기간을 다리가 큰

말고요. 그래서요, 이 공부라는 게 너무도 좋아서 부처님이 여복하면 "체세생애에 내 몸뚱이 고깃 덩어리가 없어도 너희가 있다면 내가 있는 것이니까 열심히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몸속에 있는 모든 것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선장이고 마음 내는 거는 제멋대로 내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려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하려면 사기질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 내는 게는 멋대로예요.

그런데 그 선장이 되는 마음이란 놈은 그 멋대로 내는 마음이 나쁘고 좋고 잘못도 못하고 하는 걸 어느 놈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놈이, 마음

염주 알은 줄을 진짜로 믿어야 해요 자기 영혼의 뿌리니까요!

만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근본 선장은 요놈이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지 오래 좋게 생각을 하는데 다 알고 있는 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려서 되돌려놔야 이런 겁니다. 되돌려놔야 이런다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느냐? 되돌려놓는다면 업식인 마음에 의해서 마음이 돼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선 그 선장의 뜻에 다 따라주게 돼 있죠. 선장의 마음에 다 따라주게 돼 있으니까 모자라는 건 채우면서 작용을 자꾸 해가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뇌염환자가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전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하단법석

dbx, MACKIE, crown

민들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협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흥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응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을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의 명소 : 흥천은천, 천년고찰 수려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리 664번지 **연화산 연화사**
전화: 033)433-1815, 433-2009 팩스: 033)433-5206

승복 범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상,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면, 순염색)	적상,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조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순염이 누비(한국산 순염색)	적상,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10,000 조끼 60,000 두루막 160,000
4. 면 목회술 누비(면, 염색)	적상,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조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술 누비(울세탁)	적상,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조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 니트모자, 마후라, 기방, 신도용 조끼, 바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053-256-0108
공정: 053-425-4449
휴대문: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간(肝) 이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도종 웅담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아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기미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허리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담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고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거마에 넣고 진동비빔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룬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향이러에 넣고 왕겨 97g이나니를 달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낸 빈 껍데기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타 돌출하기까지 고약 8-9이 걸립니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진원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